

‘여의도 집무실’ 강기정 시장, 추경·공약 반영 총력

NEWS

2025년 4월 18일 금요일

박정 예결위원장·예결위원 등 만나 AI예산 지원 절박 호소
각 정당 정책위 의장 등 찾아 대선공약 ‘광주의 제안’ 설득

강기정 광주시장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제출이 임박함에 따라 지역 대표 산업인 인공지능(AI) 등 예산 확보와 지역현안 대선공약 반영 세일즈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시장은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주간 여의도 집무실’을 가동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등을 잇따라 만나 광주 인공지능(AI)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서남권 관광공강 등 지역 현안 해결에 발빠르게 움직였다.

강 시장은 여의도 근무 이틀째인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정 예결위원장을 만나 “AI 예산 확보에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강 시장은 앞서 16일에는 허영 예결위 야당 간사를, 15일에는 광주를 방문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만나 정부 추경안에 AI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광주는 대한민국 유일의 ‘국가AI데이터센터’ 설립 및 운영 경험 축적, 초·중·고·대학에서 산업현장까지 ‘뿌리부터 튼튼한 인재양성 체계’ 확립, 270여개에 달하는 ‘기업 투자유치’ 성과 등을 설명하면서 “‘인프라-기업-인재’를 고루 갖춘 광주에 ‘속도’와 ‘집적’으로 대한민국 AI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

정부 목표인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이미 광주에 구축된 국가AI데이터센터와 엔비디아 H100 880장에 더해 GPU 추가 투입, 기업 실증 지원이 절실하며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광주에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시장은 “광주에 속도감 있게 집적해야만 전 세계 AI 경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누구보다 빨리 속도를 낼 수 있고 대한민국 AI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며 “국가가 만들고 광주가 운영하는 국가AI데이터센터를 100% 활용하기 위한 예산은 광주만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판을 여는 예산으로, 이는 대한민국 AI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박정 예결위원장은 “이번 추경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에 맞춰져 있다”며 “광주의 인공지능(AI) 사업에 대해 알고 있고, 이번 추경안 심사 때도 잘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광주에 구축된 국가AI데이터센터에서는 전국 900여개의 기업이 2000여건의 AI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대한민국 AI발전의 핵심기지로 활용되고 있다.

274개의 AI기업이 광주에 투자유치를



강기정 광주시장이 17일 국회에서 박정 예결위원장을 만나 광주시 AI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이번 추경에서 AI예산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협약·실행하고 있으며, 최근 퓨리오에서 아이아가 광주와 협약을 맺었다.

또 AI 인재육성 사다리를 통해 1명 이상의 AI인재를 배출했고, 20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거두는 등 AI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AI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또 각 정당을 상대로 한 ‘대선공약 세일즈’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모델시티-더 브레인 광주, 미래모빌리티 신도시 등 15대 과제,

40개 사업, 81조원 규모의 정책을 담은 광주시 대선공약 ‘광주의 제안’을 발표한 데 이어 정당 대선공약에 광주 핵심현안과 미래성장 전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의도 현장행정’에 주력하고 있다.

강 시장은 이날 조국혁신당 서왕진 최고위원, 진보당 윤종오 상임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전종덕 원내부대표, 장진숙 정책위의장 등을 만나 광주시 대선공약인 ‘광주의 제안’을 설명했다. 개혁신당에도 광주의 핵심 프로젝트를 담은 대선공약을 전달했다.

앞서 전날에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각각 만나 협력을 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대선 공약 반영과 예산 확보는 지자체의 5년 후, 10년 후의 미래를 결정짓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며 “지난 이틀간 주간 여의도 집무실을 차리고, 실국장들과 행정력을 집중하며 발빠르게 움직였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국화와 정부의 협력을 이끌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시, 360도 채움 프로젝트 시행
중증장애인 주거·이동권 강화

광주시는 이달부터 중증장애인의 주거·이동·건강권 강화를 위한 ‘360도 채움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기금 1억원을 활용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정에 안전시설물 설치 지원(세이프 홈), 외상 근육장애인 급급차 이용료 지원, 건강검진 코디네이터 지원 등 3개의 맞춤형 장애인 복지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단순 보조금 공모가 아닌 광주시가 직접 기획해 추진하는 모델이다.

‘세이프홈 지원사업’은 사업비 5600만원을 투입,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정에 완충매트, 방충망, 유리강화필름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350만원까지 총 15가구를 지원한다.

올해 한시 사업인 ‘외상 근육장애인 급급차 이용료 지원’은 복지기금 1600만원을 들여 사설 급급차 이용료를 연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에 세빛골 차량 이용이 어려운 외상 근육장애인의 병원 이동 불편을 해소한다.

‘장애인 건강검진 코디네이터 지원’은 중증장애인의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800만원을 투입한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전남 현안 대선 공약 채택 ‘힘 쏟는다’

도, 매주 국회방문…정당 지도부·정책담당 의원에 건의

최근 각 정당의 대선후보 경선이 막을 올린 가운데, 지역 대선 공약 반영을 위한 전남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8일 대선공약 건의과제를 공식 발표한 이후 주요 정당 및 국회 등을 찾아 공약 건의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최근 전남지역 국회의원, 지역 출신·연고 의원을 만난 데 이어 17일 윤진호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이 주요 정당 지도부 및 정책 담당 의원들에게 전남 지역 대선공약 건의 과제를 설명하고, 각 정당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건의했다.

특히 민주당 호남권 정책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안도걸 국회의원, 민주당 최고위원실 등 지도부,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등 주요정당 공약에 관계된 인사들을 집중 방문해 지역 공약이 정당공약으로 공식 반영하도록 설득했다.

역대 대선에선 지역에 꼭 필요한 핵심사업,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해묵은 과제들이 대선공약에 반영돼 지역발전의 기폭제 역할을 한 바 있다. 19대 대선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설립’, ‘해경 서부경비창 유치’, 20대 대선인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자동화 항만 테스트

트베드 구축’,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확대’ 등이 좋은 사례다.

전남도가 이번 대선에 공약으로 반영시킬 최우선 핵심과제는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글로벌 공급망과 온실가스 다배출 문제로 위기에 처한 여수산단 및 광양만권을 되살릴 석유화학·철강산업 당공약으로 공식 반영하도록 설득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각 정당 및 후보자,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공약과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대선공약에 최종 반영되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천년사찰 세계명상관광 사업 전남 사찰 5곳 선정

불갑사·백양사·대흥사·봉불사·쌍봉사 등

전남도는 섬, 명상, 걷기 등 사찰 치유 관광 일환으로 추진한 ‘남도 천년사찰 세계명상관광’ 사업 공모에 영광 불갑사, 장성 백양사, 해남 대흥사, 무안 봉불사, 화순 쌍봉사 등 전남 5개 사찰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천년사찰 세계명상관광은 전남지역에 있는 천년 고찰(古刹)을 활용해 전남의 ‘섬·치유’ 이미지와 부합하는 차별화된 명상관광을 추진하며, 휴식이 필요한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사찰별로 영광 불갑사는 ‘심호흡 명상’, ‘걷기 명상’, 하루를 되돌아보는 ‘감사명상’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상사화축제와 연계해 9월께 진행 한다.

무안 봉불사는 6~10월 걷기 명상 대회, 청소년 명상캠프, 사별가족 치유 프로그램을 사찰 내 명상 심리센터 ‘섬’과 연

계해 진행한다. 체류형 명상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섬’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명상관광의 브랜드화에 기여하고 있다.

장성 백양사는 정관스님의 사찰음식 수행과 선명상 프로그램, 가족형 1박2일 템플스테이 등을 6~11월 진행한다.

해남 대흥사는 다도 행사와 연계한 명상 프로그램을 포함해 다식·물레 체험 등 참여형 이벤트도 함께할 수 있다. 9~11월 기간 웰니스 관광을 주제로 한 해남 시티투어버스 테마상품과 연계해 진행한다.

화순 쌍봉사는 ‘쌍봉사, 꽃과 차, 길을 거닐다’라는 주제로 꽃 명상·차담 프로그램, 생산의소 걷기 프로그램 등을 9~12월 진행한다.

이밖에도 전남도는 남도 천년사찰 세계명상관광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관광재단과 협업해 사찰별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SNS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홍보마케팅도



추진할 계획이다.

심우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남도 천년사찰의 명상관광을 통해 전남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특별한 ‘섬과 치유’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과 글로벌 홍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조경/건축/인테리어/실내건축/사업

다양, 디자인에 취하라!

— 벽돌담의 품격을 더하겠습니다

- ✓ 자연석같은 전통 사괴석문양 '통경벽'을
- ✓ 세계최초 한글조립식 문자블럭 '세종벽'을
- ✓ 조적, 물담 등 별도의 잡 자재가 필요없이 셀프시공이 가능한 '키어블럭'
- ✓ 담장 조성 각종 건축인테리어블럭

풍경벽돌배재형 담장

벤스형 담장

한식기억형 담장

채스블럭 담장

키어블럭

다양은 예술이다

신제품 키어블럭(조립식조경용) PGT국제특허출원

NAVER 뉴정원산업

본사공장 전남 화순군 이양면 약포로862(풍림지 629)
Tel. 061)373-9566-7 Homepage. www.jtbl.co.kr